

2012.11.26(월)~11.30(금)
시드니/캔버라

오스트레일리아 AADC 회의 출장 자료

2012. 12.

임 원 혁

1. 출장 개요 및 일정

☐ 출장 배경 및 목적

- 2010년 12월 서울 준비회의 이후 KDI와 공동으로 Asian Approaches Development Cooperation(AADC)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아시아재단(The Asia Foundation: TAF)의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요 협력기관*과 AADC 및 2015년 이후 개발의제에 관한 세미나를 기획

* 시드니의 Lowy Institute, 캔버라의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NU) 및 AusAid

- AADC 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과 외교정책, 아시아적 개발협력사업, 2015년 이후의 개발의제에 관해 발표 및 토론하고 향후 개발협력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출장 일정 : '12.11.26(월)~30(금) / 오스트레일리아

< 세부 일정표 >

일 자	시 간	내 용	비 고
11.26(월)	20:20 → 08:20(+2) (약 10시간 소요)	인천 → 시드니	OZ 601
11.27(화)	오 전	체크인 및 휴식	Radisson Blu Plaza
	13:00~15:00	아시아재단 간담회	Searock Grill
	19:00~20:30	환영 만찬	Radisson Blu Plaza
11.28(수)	09:30~12:30	Lowy Institute Event	Lowy Institute
	12:30~14:00	Malcolm Cook	
	17:35 → 18:25	시드니 → 캔버라	QF1493
	19:00~	호텔 체크인 및 만찬	Crowne Plaza
11.29(목)	09:00~12:30	ANU Event	ANU Crawford School
	12:30~13:30	오찬	ANU
	14:00~15:30	AusAID Event	AusAID
	18:00~19:30	폐막 리셉션	ANU
	20:00~21:30	정완성 공사 주최 만찬	대사관저
11.30(금)	07:30~08:25	캔버라 → 시드니	QF 872
	10:10~18:50	시드니 → 인천	OZ 602

<시드니/캔버라 주요 연락처>

성 명	소 속	연 락 처
고승진 상무관	한국 대사관	61-2-6270-4106 0408-815-070
Anthea Mulakala	The Asia Foundation	0451-820-524
Maureen Shaw	The Lowy Institute	61-2-8238-9030

2. 주요 내용

□ 아시아재단 간담회(11.27)

- 아시아재단 Gordon Hein 부총재, Anthea Mulakala 말레이시아 사무소 대표와 2013년 AADC 과제에 관해 논의
-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을 주제로, 잠정적으로 3월 서울에서 기후변화 감축과 녹색성장에 관해, 6월 하노이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관해 회의를 개최하고, 9월 방콕에서 최종 저자 워크숍을 개최하는 계획 추진

□ Lowy Institute 회의(11.28)

- 개발협력과 외교정책 목표/국가 이익과의 관계를 주제로 자유 토론
- 기획재정부 주형환 차관보는 개발협력도 외교정책 목표/국가 이익과 분리되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격’과 ‘국익’의 조화가 가능함을 강조(발표자료 참조)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AADC에 참여했던 아시아 지역 참석자들도 이에 동의
-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에서 온 참석자들 중 일부가 개발협력을 국익에서 분리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영국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사례를 언급
- 하지만, 다른 참석자들은 영국도 국익을 고려한다고 반박

□ ANU 회의(11.29)

- 제1세션은 AADC 공유 세미나 형태로 진행되어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의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소개(PPT 참조)

- 제2세션은 2015년 이후 개발의제를 다뤘으며, KDI-CIGI 공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발제(PPT 참조)

※ 회의 동영상 링크: <http://devpolicy.anu.edu.au/events/>

□ AusAID 회의(11.29)

- 2015년 이후 개발의제와 관련하여 특히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자유토론
- 2011년 칸느 G20 정상회의 때 Bill & Melinda Gates 재단이 제출한 개발재원 조달 방안 참조

참고 1**회의 프로그램****2012.11.28(수)**

09:30 ~13:30	< Lowy Institute Event > ○ 세션 1 : 개발협력과 외교정책 목표/국가 이익과의 관계 (How do your countries'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contribute to your foreign policy objectives and national interest?) ○ 세션 2 : 개발협력과 외교정책 목표/국가 이익의 결합이 개발 노력의 효과를 저해하는지 여부 (Does the intersec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d foreign policy objectives/national interest undermine the effectiveness or impact of development efforts?)
-----------------	--

2012.11.29(목)

09:30 ~12:30	< ANU Event > ○ 세션 1 : 아시아적 개발협력 방식 - 개발협력의 우선순위, 철학과 목표 (Asian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 the priorities, philosophies, and objectives) ○ 세션 2 : 글로벌 개발 과제에 대한 아시아적 관점 (Asian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Challenges)
14:00 ~15:30	< AusAID Event > ○ Post-2015 Global Development Agenda에 대한 패널 토론
18:00 ~19:30	< 폐막 리셉션 >

참고 2

오스트레일리아 개황

1. 일반개황

- 위치 : 남태평양
- 면적 : 7,682 km²(한반도의 35배)
- 기후 : 열대(서부, 북부), 온대
- 인구 : 22.7백만 명('11년)
- 수도 : Canberra (38만 명)
- 민족 : 유럽계(92%), 아시아계(7%)
- 언어 : 영어
- 종교 : 기독교(64%)

2. 정치체제

- 독립일 : 1901. 1. 1 (영국)
- 정치체제 : 연방공화제
- 국가원수 : Elizabeth II 영국여왕 (Julia Gillard 총리)
- 의회 : 양원제(상원 76석, 하원 150석)
- 주요정당 : 자유당(LP), 노동당(LP), 국민당(NP)
- 국제기구가입 : UN, IMF, IBRD, OECD, APEC, WTO 등

3. 경제개황

- 화폐단위 : Australian Dollar(A\$)
- 산업구조 : 서비스업 70.4%, 제조업 25.6%, 농업 19.9%
- 주요수출품 : 석탄, 철광석, 금, 육류, 양모, 기계류
- 주요수입품 : 기계류 및 운송장비, 철광석, 금
- 주요부존자원 : 석탄, 보크사이트, 철광석, 금

4. 사회지표

- 평균수명 : 81.7세
- 이동통신가입자수(백명당) : 101명('10)
- 인터넷사용자수(백명당) : 76명('10)

5. 주요 기관의 평가등급

- 한국수출입은행 : A(OECD 원용)
- S&P : AAA
- Moody's : Aaa
- Fitch : AAA

6. 주요 경제 지표

경제 지표	단위	'08	'09	'10	'11	'12 ^f
GDP	억불	10,546	9,919	12,543	14,882	15,860
1인당 GDP	불	48,530	44,817	55,474	65,477	68,916
경제성장률	%	2.5	1.4	2.5	2.0	3.0
경상수지	억불	△478	△439	△320	△407	△481
외환보유액	"	329	417	423	468	484
총외채잔액	"	8,840	11,123	12,655	13,750	14,435

7. 우리나라와의 관계

외교관계수립	1961. 10. 31.					
주요협정	어업협정('83), 이중과세방지협약('84), 항공협정('92), 산업기술협력협정('93), 과학기술협력협정('00), 민사사법공조조약('00), 에너지 및 광물 분야협력협정('05), 사회보장협정('08)					
교역현황	단위	'08	'09	'10	'11	'12(1~6월)
수출	백만 불	5,171	5,243	6,642	8,164	4,554
수입	"	18,000	14,756	20,456	26,316	11,106
무역수지	"	△12,829	△9,513	△13,814	△18,152	△6,552

◇ 빌게이츠 재단은 간느 정상회의에 제출될 개발재원 보고서의 개요(Technical note)*를 회람

* '11. 9.23일 재무개발장관회의시 논의됨

1. 도입 (Introduction)

□ 同 개요는 정상회의에 제출될 개발재원 보고서 중 재원조달 방안 관련 주요내용만을 요약*

* 동 문건이 보고서 초안이 아님을 강조(not a draft of the report)

□ 최종보고서는 개발을 위한 혁신(innovation)의 중요성 및 혁신을 확산시키기 위한 G20차원의 파트너십 구축 등 정상들을 위한 정치적 메시지가 강조될 전망

○ 재원조달방안은 ① 수원국 자체 재원 활용, ② 성장·빈곤 감축을 위한 원조(aid) 확대 필요성, ③ 재원조달·혁신 원천으로서 민간·신흥국 역할 등으로 구성될 계획

2. 개도국 자체재원 활용 (strengthening poor countries own resources)

□ G20가 개도국 공공재원 관리 및 민간투자 확보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개발경험공유, 투명성 향상 등 추진할 것을 제안

○ (예) 아프리카 예산개혁 공동이니셔티브(CABRI*) 및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ITI**) 확대, 예산배분 및 행정성과 점검을 위한 동료검토 메커니즘(peer mechanism), 원조조화·기술협력 등

* CABRI: Collaborative Africa Budget Reform Initiative

**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 풍부한 자원에도 부패 등으로 빈곤이 지속되는 저소득국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다국적 자원채취기업의 정부 지급액 및 정부의 수취액 공개를 의무화

3. 원조확대 공약 이행 (strengthening aid commitments)

- 선진국 예산대비 원조비중은 1-2%에 불과하여 원조축소는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기 어려우나,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

⇒ 글로벌 경제위기,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원조확대 공약의 지속이행 또는 최소한 現지원비율 유지 필요

* '15년까지 공약국은 원조확대 공약이행, 기타국은 현수준 유지시 '10년 원조 대비 800억불 추가 확보 예상

- 한국,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지속적 원조 증가가 전망되나, 원조통계의 투명성 확보 필요

4. 개발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새로운 잠재적 자원 마련 (Potential new revenue streams for development and climate adaptation)

- (금융거래세) 한국, 영국 등 일부국가가 시행중임을 감안시,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채택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 G20국가의 주식에 10bp, 채권에 2bp 부과시 연 480억불 확보 가능

- 금융거래세 도입에 관한 국가간 입장차를 인정하나, 개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찬성

- (담배세) 담배세 인상을 통해 얻어진 자원*의 일부를 보건 분야에 지원할 것을 제안

* G20·EU 국가 세율을 평균 48% → 70%(WHO 목표치)로 인상시 연간 1,700억불 조성 가능

- (기후변화 관련) 탄소배출에 대한 가격 설정, 국제항공·해운세 등 고려 가능

- 다만, 탄소배출 가격설정은 도입·정착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국제항공·해운세는 국가간에 공평하게 과세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점

* 국제해운세(벵커유에 부과)는 '20년까지 연간 300억불 조성 가능

5. 민간참여 유도 방안 (Engaging the private sector in innovative ways)

□ 연간 3,500억불에 달하는 이민자 본국송금(remittance)을 촉진하기 위해,

- ① 송금거래비용 감소, ② 송금액 저축을 위한 개도국 국민의 금융접근성 제고 ③ 디아스포라 채권(diaspora bond)* 및 미래 송금액**을 기초로 한 증권화(securitization) 등을 검토

* 해외에 있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채권

** WB는 이민자의 현금성 저축액이 약 4,000억불에 이른다고 추정

□ 기대수익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개발에 기여할 의사가 있는 기부단체, 민간저축·펀드 등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구축

- 마이크로 파이낸스, 영국의 social finance bond 등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보증·세제혜택 등 유인방안 강구

□ 개도국 농업시장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백신개발을 위한 사전시장공약(Advanced Market Commitment)* 모델 적용 등 검토

*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구매력 미비로 시장에서 개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여국이 약품구매를 사전에 서약하고 제약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의약품 개발

6. 국부펀드를 활용한 인프라 투자 확대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sovereign wealth funds)

□ 현재 4조불 수준인 국부펀드의 자산 1%*(40억불)를 활용해 인프라 개발펀드를 조성하고 아프리카 등 개발수요에 대응

* 국부펀드 자산 증가추세에 따르면 10년 이내에 800~1,000억불 수준으로 확대 가능

- 빈곤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해주기 위해 MDB의 보증 레버리지 확대, 원조(공여국) 및 양허성자금 활용(MDB) 등 검토